

자산 안확의 시조론 연구

배은희*

〈국문초록〉

자산 안확은 시조가 문학으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음을 밝히기 위해 시조의 본질을 탐구하였다. 필자는 자산의 시조론을 통해 1930년대 시조로 형성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그 예비단계로 본고에서는 1930년대 초반에 발표된 자산의 시조론을 개괄하고 그 특징적 면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산은 우리 민족의 정신 발달사를 드러내는 하나의 지표로서 문학을 인식한다. 그는 문학을 새로운 시대에 부흥하기 위한 토대로 여기고 있었다. 아울러 그는 문학의 본질을 미적 감정의 표현으로 인식하였다. 그가 강조한 조선의 새로운 문학은 근대문학의 보편성과 조선문학의 특수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어야 했다.

자산은 시조의 문체를 연구한다.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경계선에 서 있었던 자산은 근대 이전에 사용하던 ‘풍격’이라는 용어를 ‘문체’라는 용어로 현대적으로 변용하여 사용한다. 자산이 시조의 문체를 연구하는 일련의 작업들은 시조의 언어 예술성을 밝히려는 노력이었다.

자산은 字數律보다는 口拍子에서 시조의 형식미를 찾고자 했다. 그리고 시조의 선율에 어울리기 위해서는 시어를 연장할 수도 있고 축약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즉 시조의 곡조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사의 변개마저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산은 시조의 가사는 내용전달이라는 의미론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음악적 기능도 한다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핵심어 : 안확, 시조론, 시조의 문체, 시조의 수사, 시조의 음악성, 구박자, 성률.

* 인천대학교 강사.

1. 서론

자산 안확(1886-1946)은 한글, 국문학, 음악, 미술, 무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9권의 저서와 174편이라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특히 『조선문학사』(1921)는 '애국계몽기 세대가 낼 수 있는 중요한 연구업적이고 3·1운동 후 새로운 세대의 국문학 연구의 비약을 가능하게 한 터전이 되는 것'¹⁾이었다. 자산의 국문학 연구는 1926년 조선왕실아악부축탁에 들어가 「조선음악사」 자료 수집을 하면서 본격화하였다.²⁾ 국어국문학 분야에 관한 논문은 105편이나 되고, 그 중 시조와 관련된 논문은 10여편이 된다.³⁾ 그리고 1940년에 『時調詩學』⁴⁾으로 그 동안의 연구를 집대성하고 더불어 그의 시조 작품 160여 수도 발표하였다.

자산에 관한 연구는 국문학, 국어학, 국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명된다.⁵⁾

-
- 1) 최원식, 「안자산의 국학-『조선문학사』를 중심으로」, (『자산 안확국학논저집』六, 여강출판사, 1994)에 수록
 - 2) 김창규, 「안자산의 국문학연구 성과에 대한 소고」, (『자산 안확국학논저집』六, 여강출판사, 1994)에 수록
 - 3) 안확, 「時調作法」, <현대평론 7호>, 1927.8 「時調의 淵源」, <동아일보> 1930.9.24-30 「時調 四篇」, <동아일보>, 1930.12.13 「時調의 體格風格」, <조선일보> 1931. 4.11-18 「時調의 詞姿」, <조선일보>1931.5.21-29 「時調의 旋律과 語套」, <조선일보> 1931.5.8-10 「時調의 研究」, <조선> 164-166.1931.6-8 「時調作法」, <조선>168호, 1931.10 「時調詩學」, <동아일보> 1939.10.5-10.12 「時調詩의 世界的 價値」, <동아일보> 1940. 1.25-2.3 「時調詩와 西洋詩」, <문장 2권 1호> 1940.1
 - 4) 안확, 『시조시학』, 조광사, 1940 (『자산 안확국학논저집』, 여강출판사, 1994)에 수록)
 - 5) 『자산 안확 국학논저집』에 수록된 논문
이태진, 「안확의 생애와 국학세계」
최원식, 「안자산의 국학」
이기문, 「안자산의 국어연구- 특히 그의 주시경 비판에 대하여」
류준필, 「자산 안확의 국학사상과 문학사관」
권오성, 「자산 안확 국악연구에 대한 고찰」

특히 『조선문학사』를 대상으로 그의 국학 사상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⁶⁾ 반면에 그의 시조론⁷⁾에 대한 연구는 두 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동영⁸⁾은 자산을 ‘失國의 암흑기에 있어서 愛國志士요, 강개한 國學者’로 평하였고, 자산의 연구는 ‘우리 국문학 연구사에 있어서 시원’이었고 ‘안목으로서도 고견’이라고 평하였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잘 알려지지 않은 『조선문학사』와 『시조시학』을 소개하였다. 이동영은 당대의 연구들이 시조의 명칭과 형식에 초점이 맞추어 연구되던 것에 비해 자산의 『시조시학』에는 ‘시조시’의 개념, 시조의 향유계층, 조직(기서결)의 구조적 의미파악, 형성요인의 음악적 구비요소’ 등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전인들이 탐구하지 못한 점들을 언급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자산의 국학연구를 본격적으로 조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 의의가 있으나 류준필⁹⁾의 지적대로 그 간단하게 소개하는 정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선희¹⁰⁾는 『시조시학』을 중심으로 자산의 시조론의 특징을 연구하였다. 자산이 歌에서 분리된 詩로써의 시조시학을 성립하였고, 시조의 조직에 있어서 구조적 의미파악이라는 선구적 안목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시조 형성에 있어 음악과의 관계 등 다른 학자들이 언급하지 못한 사항을 탐

김창규, 「안자산의 국문학연구 성과에 대한 소고」

6) 서준섭, 「안자산의 <조선문학사>에 대하여」, 한국어교육학회, 1979.

박홍식, 「안확의 애국계몽사상」, 『안자산의 국학연구와 애국계몽운동』,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3

김명인, 「한국근대 문학개념의 형성과정」, 한국근대문학연구 제 6권 제 2호, 2005.

류준필, 「1910-20년대 초 한국에서 자국학 이념의 형성과정 - 최남선과 안확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2005.

7) 이동영, 「안자산연구」, 『논문집2』, 청구대병설공전, 1965.

김선희, 「안확론」, 『한국시조작가론』, 국학자료원, 1999.

8) 이동영, 「안자산(확)연구」, 논문집 2집, 청구대병설공전, 1965.

9) 류준필, 「자산 안확의 국학사상과 문학사관」,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2쪽.

10) 김선희, 「안확론」, 『한국시조작가론』, 국학자료원, 1999.

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반면에 '자산은 시조의 성운은 부인하면서 성조를 논하고 있으며 성운은 반의식적인 소산으로 보면서 자신의 창작에는 의식적으로 끌어들이던 역논리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자산의 시조론과 작품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자산의 초기연구를 고찰하지 않고 시조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시조시학』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1920년대 중반에 일어난 시조부흥운동으로 가람과 도남은 시조를 문학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자산 역시 시조가 문학으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음을 밝히기 위해 시조의 본질을 탐구하였다. 그러나 시조의 형식을 논함에 있어 가람과 도남이 시조의 음악적 자질을 제거하려는 경향과는 다르게 자산의 이론은 음악적 자질이 혼재하고 있어 그 당대의 연구방향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필자는 자산의 시조론을 통해 1930년대 시조론 형성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그 예비단계로 본고에서는 1930년대 초반에 발표된 자산의 시조론을 개괄하고 그 특징적 면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문학에 대한 인식

자산이 일본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던 중 문학에 관심을 둔 이유는 '정치를 부흥' 하고자 해서였다. 일제강점 하에서 조선의 정치를 부흥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는 외형적인 면보다 내면적인 면을 선택하게 된다. 자산은 정치가 '인민의 외형을 지배' 하고, 문학은 '인민의 내정을 지배'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만약 '인민들의 이상' 을 다시 일으켜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게 한다면, 조선의 정치상도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다.

수에 文學과 政治와 비견하면 政治는 人民의 外形을 支配하는 者오 文學은 人民의 內情을 지배하는 者이라. 故로 日國民의 文明을 考함에는 政治의 變遷 보다는 文學의 消長을 察 함이 大하며 또한 政治를 復興코자할진대 먼저 人民의 理想을 復興하여야 其功을 可得하나니라.¹¹⁾

우리나라 최초의 문학사라 할 수 있는 『조선문학사』를 쓴 동기 역시 이러한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근대 학문을 접한 자산의 입장에서 과거의 문집들은 ‘빚’가 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동문선』, 『역옹패설』, 『과한집』, 『보한집』 등은 한시를 대상으로 하여 문장을 ‘評’했을 뿐이지, ‘문학의 변천과 발달’을 논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문학사를 기술함으로써 자산은 조선 문명의 발달 과정을 고찰하고, 동시에 조선의 정치의 발달사에 대해서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정체되어 있지 않고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외형인 정치가 발달함에 따라 그 내면인 문학 역시 발달했을 것이라는 추정에서 그는 『조선문학사』에서 조선의 정치사를 다섯 시기로 나누고, 그 태두리 안에서 문학의 발달사를 고찰한다. 물론 문학의 발전 양상이 정치의 변화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그 정치사를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今日 人種競爭이라. 民族競爭이라하는 事實은 一面으로 觀하면 政治的 現狀이라 할지나 一層 其基底를 對究하면 民族性競爭이라. 華竟民族思想을 普及하여 同化作用에 귀착하나니 以是로 列國이 自國思想을 發揮하여 各各 民族性을 競爭함에 勃勃한지라. 故로 文學에 有意한 者는 반드시 此에 眼을 擧하여 新文學을 建設할진대 東西兩洋의 思想을 調和하여 我의 特質을 發揮하여 新時代朝鮮文學을 起할지라. 要컨대 吾人의 希望은 聖火가 熱烈한 大牧師

11) 안확, 「조선의 문학」, 『학지광』 7호, 1915.

의 說法도 隨喜티안코 萬千의 與衆을 殺活하는 大政治家의 雄辯도 感歎티안코 彼健筆이 天荒을 破하는 大文學家의 著作도 悅服치 안한다. 惟苦待하고 祝願하는 바는 偉大한 思想을 赤心에서 發하여 獨特한 理想으로 世界를 同化케 함이 第一 心叩함이로라.¹²⁾

‘인종경쟁’의 논리는 바로 ‘민족성 경쟁’이다. 우선 다른 민족과 경쟁하려면 ‘자국사상’을 나타내는 ‘문학’작품을 창작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자산은 ‘동서양의 사상을 조화’와 ‘나의 특질’을 동시에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문을 창작하는 자는 독자적인 우리 민족적 특성을 염두에 두고 창작해야 하며, 동시에 ‘세계를 동화’케 하는 공통된 특질도 가져야 한다. 여기서 ‘다른 민족과 경쟁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학과 동일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면서도, 그 동일한 것들을 서로 비견했을 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발현되어야 한다.’¹³⁾ 자산의 이러한 태도는 서양의 문학과 비교하여 그 유사점 또는 동등함을 설명하려는 시도에서도 나타난다.¹⁴⁾

한편 자산이 1915년 『학지광』에 발표한 「조선의 문학」에서 문학은 ‘美感想을 文字로 표현하는 것이라할지라’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그 뒤 1922년에 발표한 『조선문학사』에서는 ‘문학이라는 것은 미적 감정에 바탕한 언어 또는 문자에 의하여 사람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당대에 ‘문학’이라는 용어는 ‘학문’, 혹은 ‘문장’, ‘문질’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지만, 자산은 문학은 ‘미적 감정’이 그 주된 본질이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었다.¹⁵⁾ 그리고 문학을 순문학과 잠문학으로 나누고,¹⁶⁾ 순문학이라 함은 ‘상

12) 안확, 「조선의 문학」, 『학지광』 7호, 1915.

13) 류준필, 「1910-1920년대 초 한국에서 자국학 이념의 형성과정」, 대동문화연구, 2005. 참조

14) 이러한 태도는 글 전반에서 곳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그 중 하나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俗謠는 下層階級の 敘事詩家의 詩라. 이는 人生의 觀察과 感情을 人物의 口로 藉하여 客觀的으로 發表하니 希臘(멜노쓰)와 같은것이라” (『조선문학사』, 『자산 안확국학논저집』 二, 여강출판사, 1994, 121쪽)

상력을 위주로 한 것이고, 잡문학은 다소 '사상성'을 더한 것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사상성'이 있다하더라도 미적 감상에 바탕을 둔 글들은 모두 문학에 포함시킨 것이다.

文集은 當時 文學家 五十餘人을 各收其集한것이다. 其 思想은 다 歌와 無異하여 溫雅와 雄建의 二派가 있으니 溫雅派는 七賢 卽 이규보·이인로·오세재·임춘·황보항·함순·이담 등이 其 代表라. 其 詩文이 豁達汪洋하여 古人을 躋치 安하며, 雄建派는 이곡·이색·정몽주·이제현 등이 其 代表다. 其 詩文 辭嚴意奧하고 曲雅高古하니라. (중략) 文集中에 在한 詩는 漢文詩로 다 興을 寫한것이 만흔지라.(중략) 予의 所見으로는 言하면 其 文章을 評함보다 그 思想을 準하여 論함이 猶可일가하매, 右에서 言함과 如히 溫雅와 雄建의 二派로 說할 畧이로라¹⁷⁾

조선 시대 시화집에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작자의 작품과 문장을 주로 평하였다. 자산은 작자의 '思想'에 근거하여 온아파와 웅건파로 두 가지로 나누었다. '온아파'의 시문의 특징으로는 시를 옛 사람의 문장에 따르지 않고 '활달, 왕양'하다고 평하였고, '웅건파'는 말이 엄하고 뜻이 깊어 우아하고 고고한 것이라 평하였다. '온아', '웅건'은 풍격 용어로서 미적 세계를 나타내는 용어들이다. 즉 자산은 작자들의 개개의 문장을 평하던 방식보다는 그 미적 세계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을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긴 것이다.

요컨대 자산은 우리 민족의 정신 발달사를 드러내는 하나의 지표로서 문학

15) 詩歌小說과가티 想像을 主한 것은 勿論이오 多少考察을 加한 史傳, 日記, 隨錄, 又 敎誨啓發의 文類라고 實로 美的 感想에 基한 著作이 된 以上은 다 이를 文學中에 攝入 되는 것이라. (『조선문학사』, 『자산 안확국학논저집』 二, 여강출판사, 1994.)

16) 文學의 本領은 純文學이라하는 詩歌 小說 敘事文 抒情文등과 雜文學이라하는 敘述文 評論文등을 勿論 하고 다 人間의 精神上 感銘과 理想上 活動을 與하는 바이다. 『조선의 문학』, 『학지광』6호, 1915.

17) 안확, 『조선문학사』, 『자산 안확국학논저집』 二, 여강출판사, 1994, 76-78쪽.

을 인식한다. 그는 문학을 새로운 시대에 부흥하기 위한 토대로 여기고 있었다. 아울러 그는 문학의 본질을 미적 감정의 표현으로 인식하였다. 그가 강조한 조선의 새로운 문학은 근대문학의 보편성과 조선 문학의 특수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어야 했다. 자산의 이러한 문학에 대한 인식은 도남과 가람이 논의한 문학적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의 공통된 목적은 조선의 문학작품들이 근대문학의 자질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었다.

3. 시조에 대한 인식

(1) 문학으로서의 시조

자산은 『조선문학사』에서 ‘시가’라는 용어를 통해서 시조에 관해서 간략하게 언급한다. 여기서 그는 조선시대 시가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初期及中葉의 詩歌는 用語가 妙하고 句調가 流麗하며 言을 餘響에 抱하여 人情의 極美를 歌할새, 그 思想은 俯仰感懷로 人生의 無常을 說하고 進하여 自然과 人生의 融化를 完全으로 成하니라. 末葉의 歌는 健實한 道義와 深遠한 思想을 發現하여 戀愛를 描함에는 句句皆 生動이라. 그 熱情이 絶項에 達하니 그 崇嚴 悲壯의 詞는 完全한 悲劇的 要所를 貫하매 聲調亦 嚴肅 淸婉으로 內容과 相伴한지라. (중략) 그 歌는 何던지 다 口口傳唱타가 諺文製作後에 此를 書하니라¹⁸⁾ -22절 儒派의 詩歌

그는 조선 초·중엽의 시가에서 ‘용어’의 교묘함과 ‘구조’의 유려함을 주목할 뿐만 아니라 그 시기의 시가는 시어의 음향을 통해서 인정의 극진한미를 노래하였다고 평가한다. 그 시가의 내용은 ‘인생무상’, ‘자연과 인생의 융화’

18) 안확, 위의 책, 71쪽.

를 주로 한다. 그리고 그는 조선 말엽의 시가가 완전한 비극적 요소를 꿰뚫을 뿐만 아니라 성조 역시 엄숙 청완하여 작품의 내용과 조화를 이룬다고 인식한다. 여기서 자산은 시가의 인정과 미적 가치를 비평의 주안점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자산은 유교사상이 농후한 퇴계시가의 문학적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¹⁹⁾

자산의 입장에서 퇴계의 문학작품은 대부분 '도의적·교훈적·철리적' 이라서 문학의 가치가 크지 못하다. 그는 퇴계의 작품 중 순문학에 속한 것은 '단편의 감흥시' 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그 예로 그는 퇴계의 〈陶山十二曲〉과 〈山川形勝〉, 〈次友人寄詩求和韻〉을 들었다. 이는 자산이 시조를 詩라는 장르 안에 한시와 시조를 포괄하여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²⁰⁾

歌詞를 記한 者는 『大東樂府』, 『靑丘永言』, 『歌曲源流』, 『南薰太平歌』, 『女唱類聚』等이 有한대 (중략) 그 文體는 古人의 糟粕을 賞함이 安이라 新宇宙의 一美境을 開設하니 겨우 四十六字 內外 短詩型으로 言語는 簡單하고 句法은 緊縮하야 不言에 語하고 言外에 餘味를 含하니 朝鮮文學의 價値는 實相此에 結成한지라. 盖 詩歌는 常語와 異하야 其 語句가 極히 精鍊치 安이키 不可하니 一語一音의 使用도 等閑치 安한지라. 此 歌詞는 朝鮮文學上에 대한 修辭法의 最發達함을 示한 것이니 冗長優美의 言語로써 可及의 緊縮하야 剛柔를 技巧하게 調和한지라 其 句形이 不長하나 其 天地는 甚히 廣大라 (중략)

19) 안확, 위의 책, 96-99쪽.

氏의 文學, 純文學에 屬한 者는 短篇의 感興詩밖에 없고 散文에 屬한 哲理文學이 有한대, 其著書는 『理學通錄』, 『朱子書節要』(중략) 등이 잇더라(중략) 此의 文學은 大概 道義的·敎訓的 또는 哲理的이라 고로 文章의 價値는 大치 못하니 오직 典實簡古하고 淸健平和할 뿐이니라. - 제 28절 퇴계와 산림문학

20) 반면에 최남선이 회고한 시조 부흥운동은 한시의 영향 아래에서 시조가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테면 그는 “내용과 형식이 漢詩同居 또 기생물인 처지에서 벗어나서 조선적의 무엇을 찾고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한다(최남선, 『조선상식문답속편』, 동명사, 1947./『육당최남선전집』3, 118쪽).

此 歌詞 中에 普通은 單形이나 六十餘字 七十餘字 특히 弄이라하는데는 數百字의 長句로 成한 字도 잇스니 此는 歌人의 情緒에 起하는 卽興詩를 筆에 任하야 書하매 巨大의 自由는 此에 存在한지라²¹⁾ - 33절 歌詞

자산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가집인 『청구영언』, 『가곡원류』 등을 노래의 가사를 기록한 것이라 제시한다. 그 속에 수록된 작품의 형식은 '46자 안팎의 짧은 시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조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60여자 70여자'로 된 즉흥시는 사설시조를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산은 시조의 미적 세계를 '신우주 사이의 한 아름다운 경지를 열어 베풀었다'고 극찬을 한다. 그 경지를 이루는 요소는 다름 아닌 시조 언어의 특이성에서 찾았다. 시조에 쓰이는 언어는 단 하나의 음의 사용도 소홀하지 않았고, 句를 이루는 수법 또한 긴축되어 있어 말 밖에서 여운을 느낄 수 있게 한다는 시조 언어의 예술성을 간파하고 있다. 이는 시조의 언어가 갖는 함축성과 울격을 중시한 태도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자산은 시조가 '조선 문학상 수사법의 발달의 정점'이라고 평가 내린다.

최남선이 『조선국민문학으로의 시조』(1926)를 발표한 뒤, 시조부흥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시조에 대한 연구도 새로운 국면에 이르게 된다. 도남과 가람이 시조의 형식미를 지수율에 주목하여 논의하였지만, 자산은 시조의 수사법을 바탕으로 문체론으로 접근한다.

文體는 文學形式의 容姿라 人의 얼굴은 父系 母系 또는 祖父의 貌習 姑母의 貌習 등을 달마 생긴 것처럼 文體의 風格도 各其 出處가 잇스니 그를 通別하면 五種이다. (중략) 嚴羽의 滄浪詩話에는 詩를 別하되 建安體, 黃初體, 宗派體 等과 蘇李體, 小陵體 等 其他 變쇄한 것이 잇스나 이런 漢學說은 到底히 組織의 類別이 아니다. 西洋의 學者는 普通으로 用語의 多寡 또 選擇에 依한

21) 안확, 위의 책, 117-118쪽.

六體만 限한지라 彼等에는 國文體 詩代文體 個人體 색손體 라틴體 쑤손體 談話體 其他 五六種이 잇서 共十數種이 되는지라 그러나 時調의 文體는 研究를 加한 結果 共七種에 不過함을 推測한다. 22)

문학 형식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자질을 '문체'로 규정하였다. 서양의 문체의 종류는 10여종으로 비교적 그 수가 적지만, 중국에서의 문체는 60여종으로 그 종류가 너무 많아서 비과학적 분류라 여기고 있다. 자산이 열거하고 있는 서양의 문체 종류 역시 오늘날의 관점으로는 생소한 것들이다. 그러나 자산이 나열한 서양문체 종류의 타당성 여부를 논의하는 것보다 자산이 근대적 관점에서 시조의 문체를 나누고 그 문학성을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자산은 시조의 문체가 약 7종임을 강조한다.

(一) 簡潔體 內容은 簡單하고 語詞는 精潔한 것이다. 品格을 主함으로써 古學者는 此體를 多用하니 剛健한 筆力과 反復玩味의 美가 其間에 잇는 것이다.

(중략)

(二) 優柔體 多言을 張設하되 潔衍한 中에도 反復을 쓰지 안코 衆俗을 알기 쉽게 한다. 近日新詩人들은 이 體를 쓰기 잘하는 것이다. (중략)

(三) 剛健體 對境을 強認하고 剛語를 現하며 簡潔한 修飾으로써 快活하게 男性的으로되는 것이다. (중략)

(四) 純推體 ○當한 意味에 限하여 感情을 寫出하되 修飾도 ○言 ○○하고 眞實達意케 하는 것이다. (중략)

(五) 華麗體 修飾은 過度히 해야 오히려 內容보다 外形의 美가 勝한 것이다. (중략)

(六) 素直體 修飾이 없시 素直○○하게 나오며 語詞 排列도 不工不努한 體

22) 안확, 「時調의 體格風格」, 〈조선일보 1931.4.11-18〉

이 글에는 시조의 3장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追敍式, 散敍式, 前題式, 後題式, 復題式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裁다 (중략)

(七) 熱烈體 語詞에 威力이 있고 熱烈한 感情에 促하여 瀑布가터 怒○가터 表言하는 것이다.²³⁾

‘語詞가 정결함’, ‘剛語를 現하며 簡潔한 修飾’, ‘語詞 排列도 不工不努한 體裁’, ‘語詞에 威力이 있음’ 등이 자산이 주목한 시조 문체의 특징들이다. ‘剛語를 現하며 簡潔한 修飾’이 잘 나타난 작품으로 자산은 김종서의 작품²⁴⁾을 들고 있다. 김종서의 작품은 무인의 호방한 기개를 나타내는 작품으로 수식이 적고 등장하는 ‘삭풍’, ‘나뭇끝’, ‘긴파람’, ‘큰한소리’, ‘거칠 것’ 등의 시어들은 강한 느낌을 준다. 주로 된소리와 거센소리로 이루어진 시어를 나열해서 쓴 것이다.²⁵⁾ 그리고 ‘語詞 排列도 不工不努’한 작품으로 정철의 작품²⁶⁾을 들고 있다. 이 작품은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져 비교적 문장의 배열이 간단하고, 평범한 일상어를 중심으로 그 주제의식을 자연스럽게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자산은 시조의 문장구조와 시어를 중심으로 문체를 분류하여

23) 안화, 「時調의 體格風格」, 〈조선일보 1931.4.11-18〉, 예로 든 작품은 생략.

24) 안화, 「時調의 體格風格」, 〈조선일보 1931.4.11-18〉

朔風은나뭇끝헤불고
明月은눈속에찬데
萬里邊城애
一長劍잡고서서
긴파람큰한소리에
거칠것이업세라(행구별, 띄어쓰기는 원문에 따름)

25) 이는 뒷장에서 논의할 시조의 음악성과 연관된다.

26) 안화, 「時調의 體格風格」, 〈조선일보 1931.4.11-18〉

마을사람들아
울혼일하자스라
사람이되여나서
울치웃못하며는
마소를갓곳갈씨워
밭떡이나달으라(행구별, 띄어쓰기는 원문에 따름)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자산이 '문체'라는 용어와 '풍격'이라는 용어를 동의어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풍격'이라는 용어는 비평 대상이 발산하는 분위기의 미적 특성이다. 풍격 비평 방식은 중국에서 시작되어 유희의 『문심조룡』, 종영의 『시품』, 교연의 『시식』, 사공도의 『이십사시품』 등에서 그 전통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시대 시화집인 『과한집』과 『보한집』에서부터 조선시대에 홍만종이 역대 시화집을 모아서 편찬한 『시화총림』, 그 외 개인 시화집에서도 풍격 비평을 볼 수 있다. 풍격 비평은 현대 비평과는 다르게 내용과 형식을 구별하여 분석하지 않고 작품 전체의 미감을 나타내는 방식이라 근대화 이후에는 풍격비평을 보기가 사실 어렵다.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경계선에 서 있었던 자산은 근대 이전에 사용하던 '풍격'이라는 용어를 '문체'라는 용어로 현대적으로 변용·교체하여 사용하고 있다. 시조에 문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는 일은 시조가 문학형식의 이름다운, 즉 미적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함이다.

詩는 感情의 文이라 고로 一方思想을 傳하는 上에 一方讀者의 情도 感動케 하는 것이다. 이를 爲하야는 特히 文章의 外樣을 美케 함을 要하나니 이 文美를 取함을 修飾이라하고 修飾의 作事形式을 詞姿라한다. (중략) 東洋漢文界서도 相當히 多數로 말한바잇스나 그는 科學的으로 認定키는 難하다. 지금 餘가 말코자함은 各處學說을 躋이하야 時調에 나타나잇는 詞姿를 陳述코자할새 二十四法의 잇습을 說明하려한다. 27)

「시조의 체격풍격」에서는 시조의 3장으로 이루는 원리와 각 장의 문체적 특질을 논했다면 「時調의 詞姿」에서는 좀 더 세분화되어 문장의 수사에 대해 논한다. 이 글에서 24가지의 수사법을 소개하며 시인이자 학자들을 만드

27) 안확, 「時調의 詞姿」, <조선일보> 1931.5.21-29

시 수사의 법칙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산은 시조의 미적 효과를 그 문장 수식, 즉 '詞姿'에서 찾고자 한다. 시의 미문이 되기 위해서는 시어의 선택을 잘 해야 할 것이고, 이 선택된 시어를 수사법의 원리에 따라 조직해야 한다. 그 원리 중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으로 '조응법'²⁸⁾을 제시하기도 한다.

자산은 시조의 미적 세계를 형식에서 찾되 음조, 어구배합, 내용과 형식의 조화에서 찾으려 노력한다. 그래서 시조의 수사상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자 한다. 시조의 문체와 수사를 연구하는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은 시조의 언어 예술성을 밝히는 노력이었다.

(2) 음악으로서의 시조

육당은 「朝鮮國文文學으로의 時調」²⁹⁾에서 '文學으로의 時調, 詩로의 時調'의 가치를 주장하였고, 도남은 「時調의 本領」³⁰⁾에서 '朝鮮에서는 버리지 못한 文學'으로 시조의 문학성에 초점을 맞추어 시조론을 펼쳤다. 가람 역시 「時調의 發生과 歌曲과의 區分」³¹⁾에서 '時調의 唱은 時調의 作과 탄 것'이라 하여 '음악으로서의 時調보다도 文學으로서의 시조를 연구하고 창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도남과 가람은 시조의 형식상의 특징을 지수율에

28) 안확, 「시조의 작법」, 〈조선〉 제 168호, 1931.10

文章은 修辭하는 詞姿法에 잇서서는 文章學을 講하면 알 것이다. 고로 詞姿法을 說明키는 도리혀 衍文의 일이다. 그러나 時調의 가장 필요한 修辭法은 今에 그를 陳述치 안이 할 수 업다. 그것이 무엇이나하면 곳 照應法이다. 古人의 時調는 奇巧한 詞姿를 治裝함보다 卽興의 感情을 率直히 描寫하는 것이 例套로 되였다. 對象에 向하야는 人의 感情에 順應케함이 本色이다. 고로 그 詞姿는 所言이 好口調 好見 好聞 好考 好感케 함을 主할 새 音調의美 語句配合의 調和 內容形式의 調和 등을 힘써하니 照應法은 그런 情神에 主重하야 온 것이다. 照應法은 곳 類似한 思想을 隔置하야 相照相呼應하는 것이다.

29) 최남선, 「조선국문학으로서의 시조」, 『조선문단』, 1926.5

30) 조운계, 「시조의 본령」, 『인문평론』 제 2권 2호, 1940. 2

31) 이병기, 「시조의 발생과 가곡과의 구분」, 『진단학보』 1집.1934

두고 조선시대 시조 작품을 분석하여 지수율을 제시한다.³²⁾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근대시조는 창작된다. 이로써 문학으로서의 근대시조는 음악과 문학적 특징이 함께 어우러져 이루어진 조선시대 시조와 변별점이 뚜렷해지게 된다.

그러나 자산은 시조를 문학으로 인식하였으나 동시대 다른 연구자와는 달리 음악성을 배제시키지 않았다. 자산의 이론에는 문학과 음악성이 혼재되어 있다. 고전시조를 문학으로 보더라도 음악적 요소는 제거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³³⁾

時調는 오직 詩로만 指目할 것이 아니라 音樂과 合致되어 있는 것을 記憶하여 둘 것이다. 大概 古人의 詩는 音樂的 表白과 調協되어 오든 바라. (중략) 時調를 짓는다 그녀는 時調의 原形인 音樂的 表白法을 研究치 安할수 업서. 故로 時調의 板眼이란것을 모르면 時調를 짓지 못하니 近來 詩人의 時調를 짓는 것들이 格式에 不습이라한 것은 곳 板眼을 모르고 짓는 까달기라 그런즉 荊川禪編에 若不能歌其詩但能說其義非詩之本義라 한 말은 내가 하고자 한 말이라호라.³⁴⁾

32) 이병기, 「시조와 그 연구」, 『학생』 1928. (『가람문선』에 수록, 252쪽)

초장 : 제1구(6자-9자), 제2구(6자-9자)

중장 : 제1구(5자-8자), 제2구(6자-9자)

종장 : 제1구(3자), 제2구(5-8자), 제3구(4·5자), 제4구(3·4자)

조운제는 「시조 지수고」, 1930.2.6 『신홍』 제4호에서 가람이 제시한 지수율을 초장과 중장이 두 구로 이루어진 반면 종장이 네 구로 구성되어있음을 지적하여 규칙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초장 : 제1구(3), 제2구(4), 제3구(3), 제4구(4)

중장 : 제1구(3), 제2구(4), 제3구(3·4), 제4구(4)

종장 : 제1구(3), 제2구(5), 제3구(4), 제4구(3)

33) 자산은 『시조시학』에서는 이를 구별하기 위해 '시조시'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34) 안확, 「시조작법」, 『현대평론』 7호, 1927.8

자산은 시조 창작자는 시조가 '음악과 합치'된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래 시인들은 시조의 음악적 규칙을 배제하여 창작하였기 때문에 '격식'에 맞지 않는 작품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 지적한다. 자산이 논하는 '음악적 표백법'이란 단지 시조의 음악적 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조의 시어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성, 즉 율격을 말하는 것이다. 자산은 시조를 음악과 구별해서 인식하지 않았고, 시조가 가진 율격상의 특징을 연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조선 문학이 가진 특수성을 밝혀내는 일이었다.

이에 자산은 시조의 율격을 '구박자·성률·어투 및 조응법'³⁵⁾ 등으로 연구하여 발표한다.

舊式의 詩던지 新式 自由詩던지 一體 詩라하고 보면 旋律이 업지 안타. 그런데 自由詩는 其 旋律이 自由로 되고 舊詩는 其 旋律이 規則的 限定이 잇게 된지라 時調의 旋律로 말하면 몬저 口拍을 ○할것이니 口拍은 一章에 在하여 二拍節이 잇는데 其 一拍節의 拍은 字音에 따라 五字六字七字八字 或 九字로되다.³⁶⁾

자산은 시조는 자유시와 달리 그 선율이 규칙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口拍子'가 선율을 이루는 첫째 요소라고 이해하였다. 그는 口拍子는 '음의 계기적 결합에 際 하여 其 長을 통일하는 바의 법칙'³⁷⁾으로 시조의 선율적 감각을 이루는 요소라 생각했다. 이는 시조창을 토대로 하여 내린 시조의 형식이다. 자산이 제시한 시조의 형식은 초장·중장·종장이 각각 二拍節을 이루고,

35) 시조는 조선문학의 본체로서 국풍의 시로 된 것이다. 그 문장법은 보통 수사학의 원칙과 다름없으니 그 율조의 조직은 조선 독특한 형식으로 되니 이제 나는 시조의 율조와 작법에 대하여 그 독특한 형식인 구박자·성률·어투 및 조응법 등 4조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시조의 작법」, <조선> 제 168호, 1931.10

36) 안확, 「시조의 선율과 어투」, <조선일보>, 1931. 5.8-10

37) 안확, 위의 글

하나의 一拍節의 자수는 5자에서 9자이다. 이는 시조에는 자수율보다 그 拍節과 어울리는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있다.

朝鮮語는 語尾가 變化하니 卽 크는 形容詞나 名詞로 될 때는 棼 크기 크 등으로 變하고 副詞로 될 때에는 크게로 變하는지라 이럼으로 廉을 볼 必要가 없시 音의 多寡를 조차 強弱으로써 口拍子를 보게 된 것이라 38)

자산이 자수율보다 구박자를 중요한 요소를 인식한 이유는 시조의 선율이 자수율이 아니라 ‘음의 계기적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한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한시의 선율은 5언, 7언 등 자수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사용된 시어의 성조에 의해 실현된다.

그러나 우리말은 성조가 없고 또한 고립어인 한자와는 다르게 어미변화를 한다. 따라서 자산은 자수율보다는 강약에 근거를 두는 口拍子에서 선율의 요소를 찾으려 한 것이다.

자산이 제시한 시조의 형식은 가람이 제시한 시조의 형식과 유사하다. 가람과 자산이 제시한 시조의 형식이 유사한 이유는 가람 역시 음악에 대한 식견을 바탕으로 시조를 접근했기 때문이다. 가람은 시조에 ‘고저음·강약음’이 있지만 그것은 ‘일정하게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³⁹⁾ 그러나 자산은 시조의 語법에 ‘강약음’이 규칙적이라 주장한다.

헌 샷갓 強強弱 / 군 마음 強強弱

38) 안확, 위의 글

39) 이병기, 「시조와 그 연구」, 『학생』 1928. (『가람문선』에 수록, 249쪽)

高低音이나 強弱音 따위도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중략) 각 지방을 따라 서로 다르기는 할망정 말의 악센트가 있기는 있습니다. 다른 지방보다 경남, 경북, 전남지방 같은 데는 현저하게서리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 고저음·강약음이 일반적으로 일정하게는 있다 하진 못하더라도 과연 아주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귀 조흔가 强强弱弱 / 예 마진가 强强弱弱
 잠 못 들어 强强强弱 / 내 못 니지 强强强弱
 네야 권가 强弱强弱 / 시름 겨워 强弱强弱

다시 말하면 一音一語는 强하고 二音一語는 頭音이 强하고 後 一音은 弱
 三音一語 頭一音 强하後二音 弱한 법이다.

이 口拍子의 安排를 잘 하여야 詩의 律美를 成하나니 만일 이것을 잘 못하면
 내용이 아모리 조하도 詩格이 조치 못한지라. 假令 强音を 내리 三音만하면 不
 可하다. 즉 一音一語를 三連하면 口調가 順치 못하고 聲律이 和하지 못하니⁴⁰⁾

자산은 一拍子 안에서 강약을 잘 조화시켜야 시의 율격이 이루어진다고 주
 장한다. 일음절 단어는 '강'하게 읽히고, 이음절의 단어에서는 '강-약'으로 하
 고, 삼음절에서는 '강-강-약'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배치해야 한다. 이것을 규
 칙적으로 반복하면 감각적인 선율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동일한 음만 연속하
 면 쾌감이 일어나지 않고, 강약음을 규칙적으로 교환하면 긴장이 이완되어
 쾌감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강약의 안배가 되지 않으면 내용이 아무리 좋아
 도 좋은 歌詞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시조를 짓는다는 것은 시어가
 가지는 율격적인 면을 고려하여 시조의 선율과 조화를 이루게 배치하는 것이
 었다. 그래서 자산은 시어의 선택이 '歌詞의 本分'이라 주장한다.

자산은 口拍子와 더불어 聲律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聲律은 음악
 에서 聲과 六律과 이루어진 가락을 나타내는 말⁴¹⁾이다. 자산은 성률을 '시
 를 낭영하여 어맥이 순화하고 음조가 미려하게 수식함을 일컬음'이라고 여기
 고 성률을 '음조'와 '운'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40) 안화, 「시조의 선율과 어투」, 〈조선일보〉, 1931. 5.8-10

41) 음은 궁상각차우를 이르고, 율은 양성(陽聲)에는 황중, 태주, 고선, 유빈, 이취, 무역을
 이르고, 음성(陰聲)에 속하는 대려, 협중, 중려, 임중, 남려, 응중을 일러 십이율이라 한다.
 이는 현대에 화음의 개념과 유사하다.

- (1) 延音 : 短音を 多拍子로 延長하는 것.
 이것으란 이것은 / 바이업다 배업다 / 오시드란 오시든
 한거이고 한게고 / 한더인고 하던고
- (2) 加音 : 原語音에 他音を 加하는것 이는 原語音의 數가 口拍에 不足할
 時에 添加하는 것이다.
 하는스다 한다 / 하듯다 했다 / 어데매오 어데오
 하거고나 하고나
- (3) 略音 : 多拍의 語音を 小數의 拍으로 縮約하는 것
 이라커늘 이라하거널 / 같다 가련다 / 말가 말인가
 가라자 가라하자 / 두고라자 두고하라자
- (4) 變音 : 音調를 爲하여 本音を 變改하는 것 이는 口拍의 關係가 아니라
 口音의 調子를 裝飾하는 것이다
 무스일 무슨일 / 할센정 할진정 / 어이할고 엇지할고
 알괘라 알괘다 / 어줍버 어줍게 / 잇관대 잇건대
 우음 우슴 / 아돏드면 알앗드면⁴²⁾

연음은 ‘배업다’라는 시어를 선택할 경우 박자가 맞지 않는다면 ‘바이업다’로 음절을 늘이는 것이다. 가음은 음절을 늘이되 연음과는 달리 다른 음을 첨가해서 늘리는 것이다. 약음은 음절을 축약하는 것이다. 변음은 박자 때문이 아니라 소리를 곡조와 어울리게 하는 것이다. ‘엇지할고’는 둘째음절에서 된 소리가 나서 강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어이할고’로 고치면 부드러운 느낌을 주게 된다. 이는 선율에 어울리게 시어의 소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곡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위 인용문을 통해서 곡조에 조화를 이루기위해서는 가사의 변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³⁾

42) 안확, 「시조의 선율과 어투」, <조선일보>, 1931. 5.8-10

43) 그 순음과 강음에 따라서 인상이 다르게 되면 또한 선율도 변해진다.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같은 고서의 철자법들을 보면 서로 다른 점이 많으니 그것은 불규칙이 아니라

시조의 歌詞는 내용 전달이라는 의미론적인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적인 기능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은 歌詞가 선율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변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

4. 결론

도남과 가람과 자산은 시조를 문학화하기 위하여 그 이론을 확립하였다. 자산은 '민족의 정신 발달사'를 드러내는 하나의 지표로서 문학을 강조했다. 그가 강조한 조선의 새로운 문학은 근대문학의 보편성과 조선 문학의 특수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어야 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자산은 시조의 예술성을 밝히기 위해 시조 문체론을 연구했다.

도남과 가람은 자수율을 토대로 시조의 형식미를 규정했다. 이와 달리 자산은 口拍子를 바탕으로 시조의 선율을 연구했다. 또한 시조창과 시조를 구별해서 인식하지 않았고, 그 곡조와 시어의 조화를 중시하였다. 그래서 자산은 시조에 사용되는 시어가 곡조에 따라 변개 가능하다고 보았다.

시조를 구박자로 인식한 자산의 견해는 고시조의 형식미를 자수율 중심으로 파악한 기존 연구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시조의 파격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 그리고 시어가 곡조에 따라 변개 가능하다는 견해는 가집에서 똑같은 작품이 조금씩 다르게 중복해서 수록된 것을 '편자가 다른 노래로 착각했'⁴⁴⁾다고 한 기존 논의에 대해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성조를 위하여 고의로 달리 쓰는 것이니, 시인은 이것을 주의치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안화, 「시조시학」, 『안자산 국학논저집』, 현대실학사, 1996, 286쪽)

44) 황충기, 「〈중보 가곡원류〉의 해제」, 『중보 가곡원류』, 푸른 사상, 2005, 21쪽.

아래 제시한 시조는 같은 작품인데 다르게 표기 되어 다른 곡조로 불려진 歌詞이다.
截頂에오르다하고 니즌태를 웃지마소 雷霆된바람에 失足키怪異하랴 우리는 平地에 안
갓스니 두릴것이 업세라 (362 우조두거)

<참고문헌>

- 『自山安廓國學論著集』一 ~ 六, 여강출판사, 1994
- 안확, 『시조시학』, 조광사, 1940
- 이병기, 「시조의 발생과 가곡과의 구분」, 『진단학보』1집, 1934
- 이병기, 「시조와 그 연구」, 『학생』1928.
- 조운제, 「시조의 본령」, 『인문평론』제 2권 2호, 1940. 2
- 최남선, 「조선국문학으로서의 시조」, 『조선문단』, 1926.5
- 김명인, 「한국근대 문학개념의 형성과정」, 한국근대문학연구 제6권 제2호, 2005
- 김선희, 「안확론」, 『한국시조작가론』, 국학자료원, 1999
- 류준필, 「1910-20년대 초 한국에서 자국학 이념의 형성과정 - 최남선과 안확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2005
- 박홍식, 「안확의 애국계몽사상」, 『안자산의 국학연구와 애국계몽운동』,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3
- 서준섭, 「안자산의 <조선문학사>에 대하여」, 한국어교육학회, 1979
- 이동영, 「안자산연구」, 『논문집2』, 청구대병설공전, 1965

臨高臺하다하고 나즌되를 옷지마라 雷霆大風에 失足하기 怪異하다 우리는 平地에 안
젓스니 分別업사하리라 (563 우조 이삭대엽)

春風에 셔러진 梅花 이리저리 날니다가 남게도못오르고 걸넛고나 거미줄에 저거미 梅花
줄모르고 나뭇감뭇하야라(286 우조두거)

狂風에 떨린 梨花 가며오며 날니다가 가지에못오르고 거미줄에 걸것다 저거미 落花인
줄모르고 나뭇감뭇하랸다 (446 계면조이삭대엽)

〈Abstract〉

A Study on Sijo Theory of Jasan An Whak

Bae, Eun-hee

Jasan An Whak did research on the essence of Sijo to show that Sijo has some features as a literature. I tried to show the formation process of Sijo theory in 1930s through Jasan's Sijo theory. As a preparatory step for it, I introduced Jasan's Sijo theory released in early 1930s and examined the characteristic aspects of it.

Jasan recognized a literature as a directing post that reveals the history of our national spirit. He thought a literature as a foundation for satisfying new age. Also, he recognized the essence of a literature as a emotional expression. He emphasized that a new literature in Joseon age should have not only particularity of Joseon literature but also universality of modern literature.

Jasan studied style of Sijo. Because he was at the time of modernization, he used the term, 'style', instead of 'poongkyeok', which had used before modern time. He tried to show linguistic artistry of Sijo through the series of his works about the style of Sijo.

Jasan tried to find formal beauty of Sijo in the aspect of rhythm instead of rhyme. And he claimed that poetic words can be lengthened or shortened to be harmonious with the melody of Sijo. In other words, it is possible to change the words of Sijo for harmonizing with a tune. Jasan recognized that the words of Sijo have a musical function as well as a semantic function.

Key words : An Whak, Sijo theory, Style of Sijo, Modifier of Sijo, Musicality of Sijo, Rhythm, Melody(聲律)

이 논문은 2008년 11월 30일(월)까지 투고 완료되어,
2009년 1월 4일(일)부터 1월 14일(수)까지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고,
2009년 1월 22일(목)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